



DERI ESG Issue Report

20220110

농업 ESG 경영과 실천

- 해외 주요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

ESG 구분: E & S

Executive Summary

농업 ESG 경영의 국내외 현황

- EU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분야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농업정책”과 “농장에서 식탁까지” 정책을 도입.
- 미국은 꾸준한 농정법 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프로그램”과 환경을 고려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선진화된 환경 보존 기술을 채택한 농가는 유지 대가로 그 직간접적인 도입 비용을 보전.
- 네덜란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업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푸드밸리 2030 전략” 및 “네덜란드 국책 정밀 농업 프로젝트”를 시행.
- 주요 농업 ESG 선진국들은 단순히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과 현장에 밀착하여 농가의 환경보전 개선활동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 및 컨설팅 등을 지원.

농업 ESG 평가지표 비교분석

- 주요 농업 ESG 평가지표로는 FAO의 SAFA, WBA의 Food and Agriculture Benchmark, SAI Platform의 FSA가 존재하며, 세 지표 모두 특히 환경과 사회에 영역에 주목하고 있음.
- 농업환경자원의 개선, 관리 및 보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농업 환경 정보의 개념, 관리범위의 정립이나 구체적인 정책 목표의 설정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개별부처에 의한 분산적 자료 수집과 활용의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 및 환경농업에 대한 전세계 정부, 기업, 투자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대두되는 만큼 국가차원에서도 체계적이고 관리 가능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지표 설정 작업과 관리가 필요.

목차

Executive Summary

1. 서론
2. 농업 ESG 경영의 글로벌 및 국내 현황
3. 농업 ESG 평가지표 비교분석

한유경 연구원

youkyeong.han@daishin.com
02-769-3889

양병찬 부대표

byoungchan.yang@daishin.com
02-769-3964

1. 서론

ESG란 재무적인 정보만을 고려하던 과거의 경영활동과는 달리,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인 정보까지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하나의 움직임이다. 각국 정부에서도 이상기후 완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9년 EU에서 처음 논의된 그린 딜(Green Deal)이 있다. 미국 또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그린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예고했다. 책임투자의 관점에서도 TCFD 등의 국제적인 정보 공시 기준을 설립하고 국제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ESG를 고려하여 기업 투자를 결정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ESG는 단순히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슬로건을 넘어 민간의 투자, 경영활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부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확산세의 영향으로 이제 일반인들도 뉴스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통해 ESG를 접하고 있다.

필자는 각종 산업에서 ESG 경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분야의 ESG 경영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관련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농업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나 식량생산이라는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그 활용방법에 따라 환경보전, 홍수조절, 수자원확보, 온도 및 습도조절, 대기정화, 지역사회 유지, 경관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여러 산업 중 급변하는 이상기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 군이기도 하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기온, 강수량, 일조시간 등의 변화가 농업 생산을 저해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2021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봄철 밀 수확량이 3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사례가 있다.¹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 원인이 연 4종류에서 최근 5년간에는 연 5~7 종류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피해 사례들은 탄소 중립 농업의 필요성을 반영한다.²

그렇다면 농업 분야에서의 ESG 도입 현황은 어떠한가. 농업에서 ESG의 도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명제하에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원은 1991년 세계식량기구(FAO)와 네덜란드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덴보쉬 농업환경회의에서 찾을 수 있다.³ 이후로도 국제기구 및 여러 기관에서 그 실현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유엔기후변화회의(COP26)에서 세계식량기구(FAO)가 농업 등 온실가스 배출 집약적인 산업의 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주요 의제로 삼은 사례가 있다. 이 회의에서 세계식량기구는 유엔개발계획(UNDP, UN Development Programme)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SCALA 프로그램(Scaling up Climate Ambition on Land Use and Agriculture)을 통해 민관협력을 달성할 방안에 대해서 의논했다.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환경, 사회, 경제 3가지 측면에서 환경 및 생태 부담을 줄이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동시에, 공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움직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실제 세계식량기구에서 2015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식량 생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71%가 농업과 토지 이용 변경으로 발생하고 소매, 운송, 소비, 연료 생산 등의 공급망 관리 활동에서 나머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⁴ 이에 더하여 탈산림화에 따른 자연 생태계 위협, 비료 사용, 폐수 관리 등 환경 오염 물질 관리 등의 차원에서도 농업 분야가 탄소 중립 달성 등 환경 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추측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측면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최대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식량 안보에 있어서

¹ “세계 식량 위협까지 불러오는 기후변화”, 한국일보, 2021년 7월 22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211130004468>, 2022년 1월 10일 최종방문.

² 장영주, 편지은「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08, p3

³ 김창길 외,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R-7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12., p7

⁴ 남재작, 「탄소중립, 농업 농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시선집중 GSJ』 제 290호, GSJ, 2021.8., p8.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체(IPCC)가 발간한 『제5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농업생산성 저하 및 경작 가능한 토지가 줄어들어 세계 식량 생산과 안보에서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따라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며 생산활동을 하되 그 생산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농촌의 자생성과 경제성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국내외 ESG 농업경영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본다. 이후 본 보고서의 중요이슈로서 ESG 농업경영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분석하고 검토해 본다. 지표란 한 주체의 성장과 개선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국내 다양한 ESG 평가지표가 존재하고 있으나 농업에 특화된 지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글로벌 농업 ESG 지표에 대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농업ESG 지표가 개발되어 ESG 농업경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데 본 보고서 작성의 목적이 있다.

2. 농업 ESG 경영의 글로벌 및 국내 현황

1) 해외 농업 ESG 관련 정책 및 흐름

가) EU

EU의 사회, 경제적 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일례로 EU 전체 면적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고, 인구의 약 20%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농업과 연관된 전후방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EU인구의 1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분야가 영향을 받게 될 경우, 그만큼 피해를 입게 될 인력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을 보조하기 위해 EU 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꾸준히 도입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과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각 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공동농업정책]

공동농업정책은 1962년 처음 등장하여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되며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 현재는 2014-2020년 정책이 만료되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8년 6월에 2021-2027년까지 시행할 개편된 공동농업정책안을 발표하였다. 개편된 정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 개혁에서 제시한 9가지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다; i) 공정한 농가 소득 보장, ii) 경쟁력 향상, iii) 식품 산업 공급망에서 농민의 위치 강화 및 강화 유지, iv) 기후변화 활동, v) 환경보전 및 토양관리, vi) 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존, vii) 농업 후계인력 지원, viii) 농촌지역 활성화, ix) 식품과 건강 보호 이다.⁶

공동농업정책은 크게 제 1축과 2축으로 이뤄지는데, 전자의 핵심은 소득 지지(직불제) 및 시장 지원 수단이고, 후자는 농촌개발이라고 불리우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14년 공동농업정책은 “환경보전”을 농업의 주요 기조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데, 제 1축 정책으로 친환경적인 농업 도입을 의무화한 “녹색직불금”과 2축 정책으로 모든 회원국의 농촌개발예산의 30% 이상을 친환경**

⁵ 성재훈, 「유럽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정책」, 『세계농업』, 235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04, p1

⁶ 김태연, 「EU 공동농업정책(2014~2020)의 성과와 한계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p17

정책에 배정하도록 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⁷

하지만 녹색직불금과 관련하여 형평성 및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2021년 공동농업정책은 이를 고려하여 회원국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환경과 기후에 대응하는 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정책 추진 모델 (New Delivery Model)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를 다시 강조하고, 이를 회원국 및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일례로 “진짜 농민(Genuine Farmer)”개념을 도입하여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농가가 지원금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2021년 개정 정책에서는 녹색직불금 제도를 폐지하고 “생태제도(eco scheme) 직불금”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직불금을 최소화하고, 농민의 환경보전활동에 따라 비례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구체적으로 생태제도는, 직불금 수혜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인 SMR과 GAEC(*)에 해당하는 “교차준수의무”(cross compliance) 수준을 넘어서는 활동을 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개별 회원국이 해당 정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제도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⁸

[농장에서 식탁까지]⁹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은 EU 그린딜의 핵심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식품 공급망 조성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하며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지표는 1) 농약의 총 사용량과 위험도의 50% 저감 2) 유기농업 면적 최소 25% 증가 3) 가축 및 양식용 항균제 판매 감축 4) 토지 양분 유출 최소 50% 저감 등 이다.

EU집행위는 이러한 목표와 핵심 지표를 지켜 나가기 위해 식품 생산부터 가공, 판매, 운송 처리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제안했다. 우선 식품 생산에 있어서 농약, 비료, 항생제 등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을 강화하였다. 농약의 경우 농약의 지속가능한 사용지침(SUPD, 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Directive)에 규정된 병해충종합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조항을 강화하였다. 또한, 유기폐기물 비료를 활용하여 비료 사용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영양종합관리(INM, 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 실행 계획을 마련하였다.

식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식품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포장재료에 대한 규정 강화 및 식품이 본질적으로 영향받은 지리적 특성을 명시한 지리적 표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전면 영양 표시제 및 특정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의무화를 연장하여 소비자도 건강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수산물식품 분야 R&D 지원을 강화하고, EU를 넘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나 식품을 수입하는 기준에 있어 앞서 제시한 기준 같은 지표들을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나) 미국

미국은 국토 면적대비 농지 면적이 44.6%에 이를 만큼 넓은 면적을 농업이 차지하고, 국민 중 202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며 210만개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 강국에 해당한다. 또한, 2015년 기준 미국의 농업 총생산은 1,807억

⁷ 김태연, 「CAP 2014년 개혁의 성과와 2021년 개혁 전망」, 『GSnJ 시선집중』, 제 288호, GSJ, 2021.03, p8

⁸ 김태연, 앞의 보고서, p106-110

⁹ European Commission, 『Farm to Fork strategy』, https://ec.europa.eu/food/horizontal-topics/farm-fork-strategy_en

달려로, 그 경제적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산업임을 알 수 있다.¹⁰

농업정책 또한 농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따라 꾸준히 변화되었는데, 그 근간에는 “농업법”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농업법(Agricultural Improvement Act of 2018)은 2018년에 발효되어 2023년까지 유효하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12가지의 세부 분야로 이뤄지는데, 본 보고서의 주제 및 다른 국가 농업정책과 관련이 있는 주요 분야로는 품목별 농가 소득지원(Commodity support), 환경보전(Conservation), 국민영양지원(Nutrition assistance), 지역 발전(Rural Development) 등 이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보존을 위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과 환경을 고려한 인센티브 프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등이 있다. CSP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미국자연자원보호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에서 각 주의 특성에 맞는 천연자원 이슈들을 충족시켜야만 하고, NRCS에서 발표하는 환경 보존 평가 기준(CART)에 따라 평가받는다. **선정된 농가는 선진화된 환경 보존 기술을 채택하고 유지한 대가로 그 직간접적인 도입 비용만큼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제 2의 농업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고, 총 노동 인력의 8.7%가 농식품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농업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주목할 만한 시장에 해당한다.¹¹

네덜란드는 스마트 농업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 푸드밸리(Food Valley) 2030 전략 및 네덜란드 국책 정밀 농업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먼저 푸드밸리란 네덜란드 내 바헤닝헨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농산품 기업들이 모인 산학연 농산품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푸드밸리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업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해 4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단백질원 다양화(육류 소비 저감 및 대체 단백질 촉진 등), 2) 순환 농업(자원 및 쓰레기 최소화), 3)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생산, 4)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효율화. 그리고 이를 위해 농업 분야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온실별 에너지를 제어하는 스마트 온실(Smart Greenhouse), 원예작물 재배 시설의 대형화 및 기계화를 위한 수직농장(Vertical Farming), 그리고 가축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 축사(Smart livestock System) 등이 있다.¹²

네덜란드 국책 정밀 농업 프로젝트(National Project Presienlandbouw, NPPL)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정부와 산학연이 힘을 합쳐 농업 부문 지속가능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4단계로 진행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과일 재배용 정밀 주사기, 센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방작물에서의 로봇 적용 등이 있다.¹³

2) 국내 농업 ESG 관련 정책 및 흐름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 장기 수립 계획 발표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또한 그 역사는 짧지만 환경개선사업이나 농업환경보전사업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요 농업 환경 관리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¹⁰ 이수환, 「미국의 농업 현황과 농업 정책」, 『세계농업』, 제 207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11, p1

¹¹ 임건택, 「네덜란드 농식품 수출촉진정책 동향 및 시사점」, 『신유통포커스』, 21-14호,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20.12, p3

¹² Foodvalley NL | Shaping the future of food together, <https://www.foodvalley.nl/>

¹³ 이삼식, 「Covid-19 속 네덜란드 스마트팜 및 식량안보 동향」, 『Global Market Report』, 20-041, KOTRA, 2020.12, p12

표 1. 국내 주요 농업 환경 관리제도¹⁴

사업명			2021 년도 예산	내역
친환경 농업 육성	농업 신산업 육성		미산정	- 환경보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확산, 육성 - 지구단위 농업환경개선프로 그램 개발, 실행 지원 - 화학비료의 적정사용 유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1,875 백만원	- 선정지역 1 개소당 5 년간 650 백만원/개소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분야별 농업환경 보전활동 비용 지원
농업환경자원활 동관리	공익직불제		미산정	- 의무준수사항 및 준수사항별 이행점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친환경농자재지원)		1,130 억원	- 정액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 회계)
농업환경 자원관리	농약 적정 사용	농자재관리 및 평가단위사업	227 억원	-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 농촌진흥청 일반회계
		현장실용화농업 기술단위사업	300 억원	- 농촌진흥청 일반회계
		농업과학기반 기술연구 단위사업	1,000 억원	- 농촌진흥청 일반회계
	공익직불제		미산정	- 의무준수사항 및 준수사항별 이행점검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부사업		110,318 백만원 (2022 년 97,193 백만원)	- 깨끗한축산농장 조성, 축산악취개선,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축산발전기금)
	농촌용수관리		94,799 백만원 (2022 년 83,329 백만원)	- 농업시설 개선(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촌 생태, 문화자원 관리		미산정	-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형 직불제]

이전의 단순히 식량을 위한 생산 수단을 넘어 농업은 환경과 생태 그리고 안정성까지 고려하는 인식의 변화가 유럽 및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한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 및 생태적 기능은 그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자유롭게 달성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농민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이러한 생산활동을 유도하는, 이른바 직접지불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전부터 쌀 농업 중심의 변동 직불제가 있었지만 이를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제 중심 농정”을 농정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¹⁵

공익형 직불제는 그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농가가 공익에 부합하는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여기서의 공익이란, 농업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환경 복원이 아니라(예컨대 식물 재배에 따른

¹⁴ 장영주, 유제범, 김규호, 「농업환경관리제도 현황과 입법·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12, p36

¹⁵ 이정환, 「농정논의의 중심, 직불제가 가야 할 길」, 『시선집중 GS』, 제 260호, GS』, 2019.01, p3

탄소 흡수 기능) 농가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환경을 보존하였을 때, 그 비용을 충당해주는 것을 의미한다.¹⁶

현행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기본형의 경우 그 지급 대상과 대상농지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그 소득, 농지 면적의 합, 종사 기간 등의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시키는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의 교차의무준수 사항처럼 준수사항을 두어 만약 미이행 시 지원금 총액에서 감면하도록 하였다. 준수사항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분야 총 17개의 규정이며, 예컨대 농작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화학 비료, 농약, 제초제 투입 저감 의무 등이 있다.

선택직불제에는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구 논이모작직불)가 포함되어 있다. 각 제도의 지급조건, 내용 등은 기존과 동일(「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하나, 향후 개정 및 확대를 통해 농가의 실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육성계획 5개년]¹⁷

농림수산식품부는 환경친화적인 농업 구축을 위해 1997년 12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 5년마다 환경농업육성계획(이후 친환경농업육성계획으로 명칭 변경)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계획안에는 친환경 농업을 위한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실행 방안, 예산, 비리나 농업 등 화학품 감축 방안, 각종 기술 개발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시나리오 및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¹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 사회가 지켜야 할 감축 목표 및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10개 분과(농축수산 포함) 72인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제안한 작업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 검토를 거쳐 2020년 10월에 발표했다. 이 중 농축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현(2018년) 기준 24.7백만에서 2050년 기준으로 15.4백만톤, 즉 37.7%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¹⁹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관계부처로서 부서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농업·농촌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을 내세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1년부터 10년간 “제 2차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추진할 예정이다.

3) 시사점

유럽 및 주요 농업 선진국에서 한국으로의 지속가능한 농가 도입 흐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외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한국 농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타 EU의 ESG 관련 정책처럼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도 EU 회원국을 넘어 그 외의 국가까지 지속가능한 식품체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례로 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내용을 담고 이를 이행할 방안을 담보하도록 했고, 더 나아가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유럽국가들에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 농가 및 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농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¹⁶ 이정환, 앞의 보고서, p7-8

¹⁷ 농림축산식품부, 제 1차~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 참고

¹⁸ 제 2차 농식품분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참조

¹⁹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2021년 10월, p14-15

또한, 해외 주요국에는 지속가능한 농업 관련 예산의 집행에 수반하는 농가의 준수 의무가 단계적으로 존재하고²⁰ 이러한 준수 의무와 보조사업 및 예산이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다양한 보조금, 예산 지원 및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정확한 가치평가가 필요하며 농업환경 관련 평가 지표 및 환경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U, 미국 등 농업 선진국들의 국가 정책을 살펴보면, 단순히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현장에 밀착하여 농가의 환경보전 개선활동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도 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²¹ 이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정부와 농가를 연결하는 전담 농정 주체 기구의 존재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는 농업 협동 조합 등이 이러한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3. 농업 ESG 평가지표 분석

1) 농업 ESG 지표 검토의 의의

농업 ESG 지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다. 부적절한 정보에 의한 농업경영은 자칫 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업 ESG 지표는 필수적이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지표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국내외 다양한 평가기관의 개발에 따른 지표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농업이라는 산업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지표가 국내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 글에서는 구체적인 지표의 제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지만 그 초석이 될 수 있는 해외 주요 농업 ESG 지표를 정리한 후 비교 검토하여 각 지표의 특징 및 시사점을 제시해보며 더 나아가 국내 농업 ESG 지표개발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 해외 주요 농업 ESG 지표

가) FAO의 SAFA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Food and Agriculture System)

SAFA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Food and Agriculture System)는 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가 2013년 출시한 식품 및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 평가 도구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세계 식량 및 기아 문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 산하 기구로 UN기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직 중 하나이다.

SAFA는 식품과 농업의 가치사슬을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농업, 가축, 임업 그리고 수산업 운영의 모든 상황과 규모에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²²

평가 지표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경제'의 차원을 중심으로 총 21개의 지속가능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21개의 주제 내에서 공급망에 특정한 58개의 하위 주제가 파생되어 하위 주제별로 총 116개의 평가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SAFA의 하위 주제는 아래 표와 같다.

²⁰ 장영주, 김규호, 유제범, 「농업환경관리제도 현황과 입법·정책과제」, NARS 입법·정책 제 96호, 2021.12.7, p.73

²¹ 장영주, 김규호, 유제범, 앞의 보고서, p.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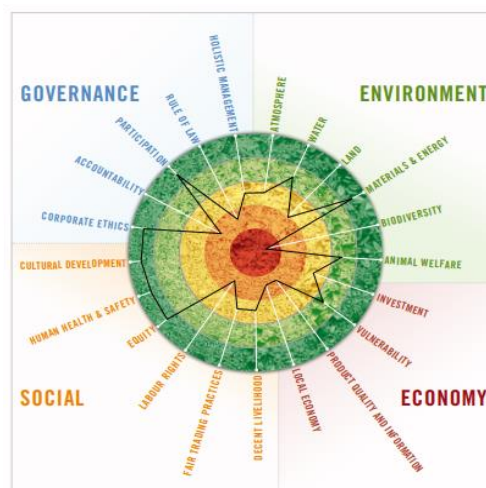
²² FAO, 「SAFA Guidelines Version 3.0」, 2014.

표 2. SAFA 평가지표²³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배구조	기업 윤리	기업 실사
	책임	감사
	참여	고충처리제도, 이해관계자 참여
	합법성	자원의 소유권
	관리	비시장 상품의 금전적 가치 공시
환경	대기	온실가스, 대기질
	물	취수량, 수질
	땅	토양의 품질, 토지 황폐화
	생물다양성	생태계/종/유전적 다양성
	재료 및 에너지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동물 복지	동물 사육과 건강
경제성	투자	투자 수준, 수익성
	취약점	생산/공급/시장의 안정성, 리스크 관리
	제품 품질 및 정보	식품 안전과 품질, 푸드체인
	지역 경제	지역 인재 및 자원 활용
사회	근로복지	생활 임금, 역량 개발
	공정한 거래 관행	공정한 거래, 결사의 자유
	노동권	강제/아동 노동, 결사의 자유
	형평성	양성평등, 취약계층 지원
	보건안전	작업장 안전
	다양성	토착민의 권리

평가의 결과는 21개의 주제를 기준으로 각 주제의 성과를 나타내는 다각형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다. 바탕이 되는 원의 5가지 색깔은 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신호등으로 피평가자는 연결된 선의 위치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보완해야 하는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 SAFA 평가지표 도면



SAFA는 현재 가장 공신력 있는 농업 및 식품 분야의 지속가능성 평가 툴로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유럽 의회(2016/2100(INI))는 SAFA 지표를 유럽의 식품 공급망 모니터링에 포함시키기 위해 EU 경쟁 프레임워크를

²³ FAO, 「SAFA Guidelines Version 3.0」, 2014.

점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SAFA Tool은 2016년 1월과 2017년 6월 사이에 총 104개국에서 이용되었다. 각 국가에서는 평가를 위해 SAFA 가이드라인을 이용하거나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된다. 특히,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이나 단체는 SAFA Tool을 활용하여 자체 지표를 개발하는 다수의 사례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세계 지속가능성 협회(WSO)의 Friend of the Sea, Friend of the Earth

세계 지속가능성 협회(World Sustainability Organization, WSO)는 SAFA 지침을 기반으로 Friend of the Sea와 Friend of the Earth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올해 시작된 식물성 해산물과 육류의 지속가능성 인증 프로그램으로 Good Food Institute(GFI)와 합작하였다. Friend of the Sea와 Friend of the Earth는 지속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의 수요를 확대하고 식물성 육류 및 해산물의 개발을 더욱 독려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스위스 유기농업 연구소(FiBL)의 SMART

스위스 유기농업 연구소(FiBL)은 SAFA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농장의 지속가능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Sustainability Monitoring and Assessment Routine, SMART)를 개발하였다.²⁴ 본 도구를 활용하여 유기농업 연구소는 브라질과 에티오피아 내 기존 커피 생산 시스템(typical conventional coffee production system)과 인증 받은 커피 생산 시스템(certified coffee production system) 간의 지속가능성을 비교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²⁵

3) 뉴질랜드 AgriBusiness 그룹의 지속가능성 대시보드 (NZSD)

2001년 설립된 AgriBusiness 그룹은 뉴질랜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하는 데 SAFA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였다. 이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해외 소비자가 뉴질랜드 수출 제품의 지속가능성 자격 증명을 검증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2012년부터 6년간 5개 분야 (와인, 키위, 관개 통합 농업, Ngāi Tahu 농장 및 야생 식품 수확, 마오리 임업)의 연구에서 프로토타입 도구로 활용되었다.

SAFA는 다양한 산업과 규모에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평가 지표의 범위는 상당히 개괄적이다. 특히, 경제(Economic Resilience) 부문에서는 손익분기점을 고려한 가격 책정, 공급망 전체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위험성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식별시스템의 구축 등을 평가요소로 두고 있다. 또한, 다른 평가들과 비교했을 때 지역사회 인재 고용, 현지 조달, 지역내의 투자 등 보다 직접적인 지역사회와의 교류 혹은 지원을 강조한 점이 돋보인다.

나) WBA (World Benchmarking Alliance) 의 Food and Agriculture Benchmark

WBA는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연합체로, 전 세계 학계와 비정부기구(NGO), 투자자 등 200여 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해 인권·환경·디지털 포용성 등 7개 분야에서 각 분야에 특성화된 벤치마크를 개발하여 기업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 및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벤치마크(Food and Agriculture Benchmark, 이하 FAB)또한 이에 포함되며, 세계의 영향력 있는 식품 및 농업 회사들이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적용하고 가치사슬 내 파트너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²⁴ Moritz Teriete, 「SMART – Sustainability Assessment Farm Peter Miller」, 2014.

²⁵ Eva Winter-Silvia M. R. Marton·Lukas Baumgart·Michael Curran·Matthias Stolze·Christian Schader, 「Evaluating the Sustainability Performance of Typical Conventional and Certified Coffee Production Systems in Brazil and Ethiopia Based on Expert Judgements」, frontiers in Sustainable Food Systems, 2020.5.27.

있다.

WBA는 이러한 벤치마크를 통해 SDGs 달성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전세계 2000개 기업 (SDG2000 list)을 식별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1년 SDG2000에 한국은 총 47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식품 및 농업 분야에서 선정된 기업은 동원그룹, 이마트, 하림 홀딩스, 롯데주식회사 그리고 전국노동협동조합이다. 이마트는 소매, 전국노동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은 농산물 그리고 나머지 기업은 식음료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7가지 각 분야별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상이하나 식품 및 농업 분야에서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와 전략(G), 영양’의 대분류를 중심으로 총 45가지 영역에서 평가가 진행된다. 공개된 대분류 별 가중치는 환경(30%), 사회(30%), 지배구조와 전략(10%), 영양(30%) 이다.²⁶

표 3. Food and Agriculture Benchmark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지배구조와 전략 (10%)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거버넌스와 책임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 (30%)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육상 자연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양식업
	육류 소비 저감 및 대체 단백질 촉진 등을 위한 육류 대체 식품
	토양 건강 및 농생물 다양성
	비료 및 살충제 사용
	용수 사용
	식품 손실 및 낭비
	플라스틱 사용 및 포장 폐기물
	동물 복지
	항생제 사용 및 성장 촉진 물질 사용
영양 (30%)	건강 식품의 가용성
	건강 식품의 접근성 및 경제성
	명확하고 투명한 라벨링
	책임감 있는 마케팅
	근로자 복지
	식품 안전성
사회 (30%)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 노동자의 권리
	인권 위험과 영향력 식별
	인권 위험과 영향력 평가
	인권 위험과 영향력 통합 및 행동
	이해관계자 관계
	근로자를 위한 고충 처리 매커니즘
	개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외부 고충 처리 매커니즘
	건강 및 안전
	기본 임금
	근로시간
	단체교섭권

²⁶ WBA, 「Methodology for the Food and Agriculture Benchmark」, 2021.2.

	직원 다양성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부여
	개인데이터 보호
	책임감 있는 세금납부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
	책임감 있는 로비 및 정치 참여
	아동노동
	강제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
	농부와 어부의 생산성과 회복력
	토지 권리

2021년 처음 출시된 식품 및 농업 벤치마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총 350개이다. 그 결과 1위는 Unilever (71.7점), 2위는 Nestle (68.5점) 이어서 Danone (63.6점)이 3위를 차지하였다.

유니레버(Unilever)는 영국과 네덜란드 국적의 세계적인 생활용품 다국적 기업으로, WBA는 유니레버가 생활임금 제공과 이민자와 여성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부문에서 전체 350개 기업 중 1위로 평가했다. 또한, 영양 부문에서는 생산되는 식품의 설탕, 지방 함량을 줄이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제품 라벨링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2위를 수여했다. 한편, 환경 부문에서도 2위를 차지하였지만 토양 오염 및 농산물 다양성 등의 영역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FAB는 각 기업의 부문별 세부 점수와 순위, 현황, 취약 영역과 개선 방법을 공개하고 있으며, 타 지표와 달리 농장보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 적합하다.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식품으로 변환하기 위한 노력, 책임감 있는 마케팅, 개인데이터보호를 위한 노력 등을 또한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느정도 규모와 체계가 있는 농업 및 식품 기업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다) SAI Platform의 FSA (Farm Sustainability Assessment)

FSA는 2014년 SAI Platform에 의해 출범되었다. SAI Platform은 식품 및 음료 산업이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글로벌 비영리 조직이다. 100명 이상의 식음료 산업 회원이 모여 지속가능한 농업 축진을 목표로 탄력 있는 농업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도구와 원칙을 개발하고 있다.

설립 배경에는 WBA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세 기업이 있다. 2002년 네슬레, 유니레버, 다논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식품 산업 이니셔티브인 SAI Platform을 설립했다. 또한, FSA를 개발하는 과정에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이다.²⁷

맥도날드는 유럽 공급망 내 90명 이상의 농부들과 함께 소고기 FSA의 초기 테스트를 거친 후 유럽 소고기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

SAI Platform은 FSA를 통해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개선하며 식음료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표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SA는 농장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의 지속가능성만을 평가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²⁸ 이는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가치사슬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다른 지표들과 달리 오롯이 농장의

²⁷ McDonald's, 「Beef-Sustainability-Report」

²⁸ SAI Platform, 「Farm Sustainability Assessment (FSA) Implementation Framework」

생산 과정에만 집중한 지표임을 의미한다.

평가 지표는 10개의 대분류 아래 총 4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환경(E), 사회(S), 경제, 농장 관리(Farm management)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FSA의 상세 평가 항목은 하기 표와 같다.

표 4. FSA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대기질과 배출량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농장의 대기오염 관리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침입종 관리
화학적 통제	위험물질 보관
	살충제 및 농약 매장 관리 및 기록 보관
	화학물질의 유출(spillages) 처리
	장비 이용 - 유지보수 및 청소
	종합적 해충관리
	식물보호제품
	살충제 활용시 위험 관리
	안전 교육
농장 관리와 지역사회	토지 취득 (Land acquisition)
	지역사회 내 농업
	농장과 토지 이용 계획
	재정적 안정
	공급자 계약
	법률 준수
	뇌물과 부패
	식품 안전성과 제품 품질
	식품 추적성 (Food traceability)
	장비 관리
	교육 및 기술 지원
근무 환경	근무환경
	임금과 보수
	윤리적인 채용
	노동자의 권리 보호
	차별과 평등
	아동 노동
	근로자 복지
	산업 보건 및 안전
	직장에서의 응급조치
영양 관리	비료 구매와 보관
	양분 관리 계획안
	토양 개량
토양 관리	토양 건강
	토양 관리
	윤작
폐기물 관리	폐기물 관리
	유해 폐기물
물 관리	관개 관리

	관개 수질
	수질오염 관리
	최적화된 관개 방법
	물 사용의 효율성 향상
식물 재료 선택 및 번식	품종 선택
	유전자 변형 생물 (GMOs)
	묘목 제품 (seeding product)

FSA는 농장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만을 평가하는 만큼 대규모 기업보다는 영세한 농장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지표로 여겨진다. 이는 화학물질 보관 방법, HACCP 인증에 활용된 정보의 최신성 등 일반 농장이 당장 ESG를 평가받을 때 고려할 만한 요소들을 평가지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나머지 두 평가기관과 달리 FSA는 지배구조(G)와 관련한 지표를 두고 있지 않다.

3) 농업 ESG 관련 지표 비교 분석

SAFA, FAB 그리고 FSA 세 가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부문 중 특히 환경과 사회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세 평가지표는 동일한 내용을 각기 다른 데이터 및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FAB는 환경 부문의 생물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비교적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의 결과를 제시한다. 반면, FSA는 다양성 보전을 위해 목표를 수립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등 정성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편이다. SAFA는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지표인 만큼 정성적 요소와 정량적 요소를 모두 반영하여 평가한다. 일부 영역에 대해 평가방식은 다를지라도 세 지표 모두 궁극적으로는 같은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다. 아래 각 부문에 대한 분석을 소개한다.

가) 환경

세 지표는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기질, 토양(품질, 황폐화, 유작 등), 용수(수질, 관개, 취수량 등), 비료/살충제/항생제 사용, 폐기물(고형폐기물, 식량, 플라스틱 등), 생물다양성 등을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SAFA와 FAB는 동물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기 도표를 통해 지표별로 각 기관이 평가하는 내용 및 방법을 비교한다.

표 5. 각 지표별 환경분야 비교

구분	SAFA	FAB	FSA
	정량+정성적	정량적	정성적
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기질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목표 수립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관리 계획의 수립, 대기오염 관리에 대한 법규 인지
토양	토양의 물리적 구조, 토지 황폐화 비율	토양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화 가능한 데이터 보유	토양 관리 계획의 수립
용수	취수량 감소, 폐수 품질	취수량 감소	최적화된 관개 방법, 빗물 재사용
비료/살충제/항생제	유해 살충제 사용	비료/살충제/항생제 사용 감소	관리 지침, 교육

폐기물	고형 폐기물 발생량과 보관방법, 음식 폐기물 감소	음식,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감소	폐기물 처분에 관한 법규 준수
생물다양성	생태계/종/유전적 다양성 보전	농생물 다양성 보전, 관련 데이터 보유	생물다양성 보전, 침입종 방지
동물 복지	동물용 약 이용	동물 복지 정책 수립	X

나) 사회

세 기관 모두 근무 환경 및 복지와 관련한 지표(산업 안전, 근무시간, 단체교섭권 등)를 평가요소로 두고 있다.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생활임금의 보장, 근무시간 준수여부 등을 포함한 근로환경을 평가한다. 또한, 아동/여성/강제 노동, 생활임금의 보장, 차별과 평등, 지역공동체 등을 공통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지역공동체와 관련해 SAFA는 토착민의 권리 존중과 식량 주권에의 기여여부, FAB는 지역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의 보유여부, 마지막으로 FSA는 지역사회의 법적 권리 준수여부와 이웃과의 소통 정책 등을 평가 요소로 둔다. 하기 도표를 통해 지표별로 각 기관이 평가하는 내용 및 방법을 비교한다.

표 6. 각 지표별 사회분야 비교

구분	SAFA	FAB	FSA
	정량+정성적	정량적	정성적
근로환경	근로자의 업무 외 시간 보장(가족, 휴식, 문화생활 등을 위한), 근로자 교육	취약계층의 건강 및 안전 위험의 식별과 해결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위험 식별과 안전을 위한 시정 조치, 근로자 대상의 정기적 훈련(Ex.응급처치)
아동 노동	미성년자(16 세 이하) 고용 금지, 미성년 근로자의 교육 보장	미성년자 고용 금지, 공급망 내 근로자의 연령 확인	미성년자 고용 금지, 미성년 근로자의 교육 보장(홈스쿨링 등), 유해 물질 취급 금지
강제 노동	퇴직의 자유, 불만 제기의 자유	단체교섭권, 강제 노동 근절을 보여주는 데이터 제공	초과 근무 금지(주당 60 시간 기준)
여성 노동	고용, 보수, 승진 등에서의 양성평등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정량적 정보 공개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한 기회 보장
차별과 평등	인종, 신념, 피부색, 연령, 장애, 정치 성향, 결혼 여부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최소 4 개 이상의 다양성 지표 수립과 지표별 직원 비율 공개	종교, 문화, 인종, 장애, 성별, 성적 취향 등에 따른 차별 금지, 동일한 근무 조건의 보장
지역공동체	토착민의 권리 존중과 식량 주권에의 기여	고충 처리 매커니즘, 지역공동체와의 소통 채널	지역사회의 법적 권리 준수, 지역공동체와의 소통 정책

다) 지배구조

SAFA와 FAB의 지배구조 영역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다른 산업군의 평가 방식과는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최대주주 지분을 등의 소유구조, 이사회 운영 등을 평가하는 타 분야와 달리 농업 분야의 지배구조 평가에서는 지속가능 목표의 수립여부, 농업경영에의 지속가능성 반영여부 등을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농장을 주 대상으로 한 평가에 적합한 FSA는 지배구조와 관련한 지표를 갖고 있지 않다. FAB는 '지배구조와 전략' 영역에 전체 평가 대비 10%의 가중치를 두고 있다. 평가요소에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비즈니스 모델에 포함하는지 여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이사회 수준의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등을 두고 있다. 이는 SAFA 또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SAFA는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매커니즘의 수립,

토착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평가지표로 두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FAB의 영양부문 등 타 부문 하의 세부 지표에서도 다루고 있는 항목이다.

라) 종합

세 평가기관 모두 농업 및 식품 분야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SAFA는 가장 많은 수의 지표를 갖고 있는 만큼 평가 내용의 범위가 넓으면서 같은 영역 내에서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모두 반영하는 등 포괄적인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할 때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에 SAFA는 가이드라인에서 규모 등에 따라 적절히 평가 지표를 가공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FAB는 보다 직관적이고 정량적인 요소를 통한 평가를 지향한다. 이러한 평가 방식을 추구하는 이유는 FAB가 개발된 배경에 있는데, 기존 벤치마크와 이니셔티브 등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활용으로 기업의 보고 부담을 줄이고 파트너 간의 활동 중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표별로 활용되는 데이터의 출처와 이해관계자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다.

FSA는 평가 대상의 범위가 좁고 내용이 타 지표대비 적은 편이다. 나머지 두 지표는 공급망 전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반면 FSA는 농장 내 생산 활동만을 평가 대상으로 둔다. 또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세 부문 중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농장위주의 평가지표라는 점은 FSA가 맥도날드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개별 농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4) 시사점

EU의 농업환경정책 추진과 2020년 국가 차원의 ‘탄소제로 2050’, ‘그린뉴딜’ 선언으로 저탄소 사회,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재로서 농업환경자원의 개선, 관리 및 보전에 대한 국내외 정책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업 환경 정보의 개념, 관리범위의 정립이나 구체적인 정책 목표의 설정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개별부처에 의한 분산적 자료 수집과 활용의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러있다. 수집된 자료들도 기후변화 대응,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 국내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업환경개선 요구 등에 대처할 농업환경 수준 평가, 농업환경개선 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²⁹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업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마련을 위해서도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성과 평가에 필요한 지표 마련 등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출시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SAFA(Sustainability Assessment of Food and Agriculture systems)를 기점으로 점점 더 많은 농업 관련 환경지표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1990년대부터 OECD를 중심으로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농업환경지표 개발 연구가 시작되었고,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10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농업 관련 기관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이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 및 환경농업에 대한 전세계 정부, 기업, 투자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대두되는 만큼 국가차원에서도 세부적인 관련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농업 ESG 경영을 위해 상기

²⁹ 장영주·김규호·유제범, 「농업환경관리제도 현황과 입법·정책과제」, NARS 입법·정책 제 96호, 2021.12.7, p.39

기술한 해외 주요 농업 관련 환경평가 지표 등을 분석 및 활용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지표 설정 작업과 관리가 필요하다.

Compliance Notice

〈ESG Issue Report〉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주)대신경제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특정한 투자상담, 권유, 또는 광고 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당 연구소는 본 리포트에서 제공된 내용에 관하여 정확성 또는 예측의 실현여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본 보고서를 분쟁 등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 연구소의 동의 없이 이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